

명의 진좌수

명월리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명의 진좌수는 한 눈에 병을 알아맞힐 정도로 의술이 능했다. 진좌수처럼 나라에서 최고의 능력을 뽐내던 인물들의 이야기는 변방으로 치부되던 제주 사람들이 자부심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다.



월계로 | 제주시 한림읍 웅포리 203 ~ 한림읍 명월리 1938-1(약 1.6km)

명월로 |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1935-1 ~ 한림읍 명월리 151(약 3.3km)

동명1길 |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1537-2 ~ 한림읍 동명리 1569-1(약 0.4km)

명월성로 |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1579-3 ~ 한림읍 월림리 273(약 6.8km)

감낭길 |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1869-3 ~ 한림읍 명월리 1613-7(약 2.3km)

하운당길 |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1851-1 ~ 한림읍 동명리 361-7(약 1.2km)

산물길 |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2125 ~ 한림읍 명월리 2087-5(약 0.4km)

명월장수길 |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334-2 ~ 한림읍 명월리 391(약 0.3km)

월계로 | 월계 진좌수

월계로는 한림읍 명월리 지역에서 서민들을 위해 의술을 펼친 월계 진좌수를 상징하는 이름이다. 중국의 화타에 비견될 수 있는 진좌수의 본명은 진국태로 얼굴만 보고도 한 눈에 병을 알아맞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한다. 진국태가 의술에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된 것과 관련해서 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어렸을 적 진국태는 마을 서당에 글공부를 다녔는데, 어느 날 서당에 가는 길에 예쁜 처녀를 만나게 되었다. 그 처녀는 다정하게 오더니 오색구슬을 입에 넣고 굴리다가 진국태의 입으로 넘겨주었다. 진국태도 입에 넣고 굴리다가 다시 처녀에게 넘겨주었다. 그 날 이후로 계속해서 진국태는 서당을 오고가면서 이 처녀와 구슬을 입으로 주고받는 놀이를 했다. 그런데 훈장이 진국태를 가만히 보니 얼굴이 점점 핏색해지고, 공부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무슨 일이 있느냐 하고 물었다. 진국태는 처녀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훈장은 오히려 잘 됐다고 하면서 내일 그 처녀를 만나거든 입 안에 구슬을 받았을 때 구슬을 꿀꺽 삼켜버린 후에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사람을 보라고 시켰다. 다음날 진국태는 처녀가 구슬을 건네주자 훈장님이 말한 대로 꿀꺽 삼켜버렸다. 그런데 그 순간 아름답던 처녀가 구미호로 변해 달려드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소년은 겁이 나서 훈장님이 말한 것을 다 잊고 그대로 서당으로 출행량을 치다 가장 먼저 훈장님을 보았다. 훈장은 아쉬워하면서 하늘을 보았으면 천문을 알게 되고, 땅을 보았으면 지리에 밝았을 텐데, 사람만 봤으니 의술에는 능하겠다고 했다. 그런 연유로 진국태는 의술에 뛰어나 유명한 명의를 되었다고 한다. 이후 진국태는 일반 의원들이 못 고치는 병들을 기이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전국의 의원들이 고치지 못하던 왕의 병을 말끔히 치료하고 좌수 벼슬을 얻게 되어 그 후로 진좌수라 불리게 되었다.

명월로/동명1길 | 명월리와 동명리

명월로는 명월리의 중심을 지난다. 진좌수의 고향인 명월리(明月里)는 마을의 산세가 좋아 학자들이 많이 날 것이라 해서 청풍명월에서 명월을 따 지었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마을의 지형이 반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명월이라 했다고도 한다. 예전에는 인근의 상명리, 동명리, 금악리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던 마을이었는데 마을의 규모가 커지면서 각각 분리되었다. 그 중 동명리의 옛 이름은 명월진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진근(鎭近)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후에는 명월리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명월리로 불리다가 별도의 마을이 되면서 동명리(東明里)로 부르게 되었다. 동명리의 마을에는 **동명1길**을 비롯해서 마을 이름을 반영한 길들이 지나고 있다.

명월성로 | 명월성지



명월성지

명월로와 이어지는 **명월성로**는 과거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웠던 명월성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명월성은 원래 목성으로 세워져 있던 것을 1510년에 돌로 다시 쌓았다고 한다. 과거 삼별초나 고려군과 같이 많은 병력이 웅포포구로 들어왔던 역사가 있었던 만큼 이 지역은 왜적의 대규모 침입에 노출된 곳이었다. 더구나 비양도에 머물면서 호시탐탐 침입을 노릴 수 있어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리했다. 그래서 동쪽의 별방진과 더불어 이곳에 명월성을 쌓고 방어를 단단히 했다. 세월이 흘러서 성의 옛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현재 성의 일부분을 복원해 놓았다.

감낭길 | 갈옷

명월로의 서쪽으로 나란하게 감나무 자생지의 의미를 반영한 **감낭길**이 나 있다. ‘감낭’은 제주어로 감나무를 말한다. 제주에는 예전부터 감나무를 이용한 천연염색을 많이 했다. 제주 사람들이 노동복이나 일상복으로 입었던 갈옷 역시 감즙으로 염색을 한 옷이다. 이렇게 만든 갈옷은 실용성과 편의성이 뛰어났다. 땀이 나도 몸에 달라붙지 않고, 빨래도 간편하게 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항균성이나 자외선 차단 등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옷이 되었다. 이제 천연염색기술은 감즙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천연재료를 활용하면서 다양화 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제주 천연염색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하운당길 | 하운당

명월로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하운당길**은 마을신을 모신 하운당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의미이다. 하운당은 오래된 팽나무를 신목으로 해서 돌담을 두르고 제단을 만들어 마을신을 모시던 곳이다. 본풀이에 따르면 이 당의 신은 남자신인 축일한집과 여자신인 술일한집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돌담을 사이에 두고 모셔진 두 신 중 축일한집은 마을의 수호신이고, 술일한집은 치병신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 마을의 아낙네들은 각각 축일(丑日)과

술일(戌日)에 정성껏 음식을 마련하여 당을 찾아 가족들의 무사안녕을 빌었다고 한다.

산물길 / 명월장수길 | 산물과 장수물

명월리에는 금수천, 명월천 등의 하천과 문수물, 잠숫내물, 산물 등의 샘물이 곳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생활용수로 사용했다. 그 중 산물은 명월하동에 있는 물로 ‘살아 있는 물’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옛날 사람들은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물을 보고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꼈던 것 같다. 산물길은 마을 사람들에게 긴요한 역할을 했던 산물의 의미해서 반영한 이름이다. 이처럼 마을의 물 이름을 반영한 도로명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명월로와 명상로 사이에 있는 **명월장수길** 역시 명월리 장수물의 고유지명을 반영한 길이다.



하운당